

환경의 문화적 접근 (연재)

전 병 성
환경부정책총괄과장

1. 머리말

최근 환경과 연관되는 쟁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한 오염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수질오염, 쓰레기, 공기오염 등 다종 다양한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치유책은 쉽게 모색될 수 있다. UN의 환경논의나 OECD의 갖가지 환경대책, 그리고 각 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데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단순히 BOD나 쓰레기 발생의 증가라는 오염현상과 동일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큰 오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환경문제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이며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태는 각국의 문화의 특성과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특성에 따라 환경관이 다르게 되며 이에따라 생활태도, 양식은 물론 주거문화, 소비문화, 음식문화가 모두 다르게 형성된다. 이와같이 형성된 문화적 특성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환경과 문화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환경과 자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문화의 의미를 개관하고 문화와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환경과 문화의 의미

1) 환경의 개념

환경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즉,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정법상의 환경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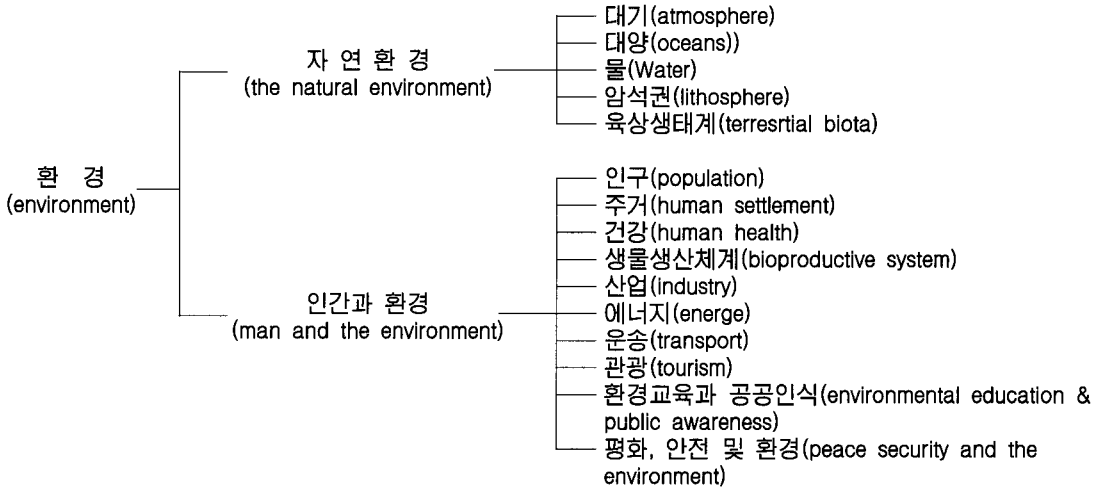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 (3) “생물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의 정의에 따른 환경의 구성체계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한 환경의 구성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환경계획의 분류는 “인간환경”에 역점을 두고 인구 및 인간의 거주환경을 비롯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교육 및 공공인식, 나아가 “평화”와 “안보”문제까지를 환경요소에 포함시켜 그 구성체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2) 문화의 개념과 특징

문화의 개념 역시 환경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인간이 특정란 사회에 생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부단히 사회성원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

유엔환경계획의 환경



도록 권유하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양식에서는 어떤 질서 또는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일반화시킨 개념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문화의 특징】

문화의 첫번째 특징은 문화가 학습되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라는 데 있다. 인간은 출생시에는 자연 그대로의 동물상태에 있다. 처음에는 생리적인 반사작용에 의해 움직일 뿐이다. 그러나 점차로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며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문화의 두번째의 특성은 사회적 유산이라는 점에 있다. 문화는 모방되고 계승된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시대로 전승되는 사회적·역사적 축적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세대와 세대간에, 또는 조상과 후손간에 언어나 문자를 통해 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기존의 문화가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전해지고 어떤 것은 사멸한다. 사회 속에서 살아 남은 문화는 그 사회가 유용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인정하더라도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

화는 사회적으로 걸러진 생활양식이다.

문화의 세번째 특성은 초개인적이며 초유기체적인 데 있다. 우리가 인간사회를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출생, 성장, 사망의 과정을 밟아 부단히 교차되지만, 문화는 큰 변화없이 자체를 유지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한 자기체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논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의 외재성과 실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가 개인 밖에 실재한다는 것은 문화의 객관성과 구속성을 의미한다.

문화의 네번째 특성은 생활절계라는 점이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동한다. 문화가 없으면 인간도 동물과 다름 없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식들이 문화인 것이다.

【문화의 기능】

이상과 같이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문화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문화는 사회적 연대의 역할을 한다.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동류의식을 발현시킨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교를 갖는 사람에게는 친근감이 생기고 사회적 결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화는 또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돕는 기능을 한

다.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서 문화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갖는 야성적, 충동적 욕구들이 억제된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시된 순서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간이 갖는 생존경쟁적 공격성이 중화되고 질서지워진다.

문화와 개인의 관계는 퍼스널리티의 획득과 관련된다. 사람은 출생시에는 백지상태이지만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동기나 태도의 유형을 확립한다. 동기나 태도의 묶음의 체계가 퍼스널리티를 구성한다. 사람은 어떠한 문화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진다. 결국 그의 인간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취득한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의 분류】

문화는 크게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된다. 물질문화는 의·식·주의 생활용품, 각종 기계, 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용구와 이에 관한 기술을 총칭한다. 비물질문화는 과학, 예술, 문학 등 정신문화와 관습, 법률, 제도 등 규범문화를 포괄한다.

3. 환경과 문화

1) 환경관

환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세계의 외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사이에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특유한 환경관(또는 자연관)이 형성되게 된다. 인간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동시에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경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

【서구의 환경관】

서구인들은 환경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구의 환경지배관 내지 자연정복관은 신의 창조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약성서 창세기편에 의하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째 되는 날 지상의 만생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이들에게 복을 내리어 땅 위에 번성하게 하고

충만케 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였으며, 물 속의 고기, 공중의 새 및 지상에서 움직이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면서도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신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생명이 없는 혹은 피동적인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동양의 환경관】

이러한 서구인들의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인들의 환경관은 순자(荀子)의 “자연천”(自然天)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인간과 자연은 원초적으로 일체라는 “천·지·인 합일”론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노장철학의 무위자연의 도는 자연의 질서를 논하여 “사람을 땅의 법칙에 땅은 하늘의 법칙에 그리고 하늘은 도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 같은 도가의 철학은 대지적이라는 공통성 때문에 일찍부터 북방계의 무속신앙과 결합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대지사상(大地思想)은 서민층의 사상이나 신앙의 기반으로서 농경민족에 뿌리깊은 숭토사상(崇土思想)에서 연유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자(孔子) 역시 우주와 환경을 존재론적 측면에서보다는 생성변화론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인간과 사물을 포함하는 우주변화의 대원칙을 “생”(生)과 “성”(誠)으로 보고 무생명한 기계론적 우주관보다 유생명한 유기적 “천·지·인·합일”의 총체적 우주관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교 역시 일체만상을 “나”(我)와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자연은 정복이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점에서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는 서구의 환경관과는 크게 다르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경제사상가인 슈바허(E.F.Schumacher)는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저서를 통하여 서구의 수탈적 경제관, 환경관을 비판하고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이른바 “불교식 경제학”을 주장하기도 했다. <계속>